

김예림, 사대륙 피겨선수권 우승 도전

7일 개최 ISU 선수권대회 女싱글 나서... 지난해 2위 차지한 이해인도 우승 도전

‘피겨 장군’ 김예림(단국대)이 ‘피겨 여왕’ 김연아(은퇴) 이후 14년 만에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김예림은 7일부터 8일 동안 미국 콜로라도 브로드무어 월드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3 ISU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에 나선다.

김예림은 이해인(세화여고)과 함께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예림은 지난해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을 땀고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9위에 올랐다. 또 2022~2023 ISU 그랑프리 대회에서도 두 차례 출전해 금메달과 은메달

을 목에 걸었다. 또 파이널 대회에도 나섰다. 한국 선수가 ISU 그랑프리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건 김연아 이후 13년 만이었다. 김예림은 생애 처음 출전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3위에 오르며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최초로

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지난해 사대륙 선수권대회 은메달에 빛나는 이해인도 첫 우승을 노린다. 최근 국내에서 열린 회장배 랭킹대회와 종합선수권대회 연속 3회에 오르며 예열을 마쳤다. 올해 사대륙 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은 한국시간으로 10일 오전에 열린다. 메달이 확정되는 프리스케이팅은 11일 오전이다. /뉴시스



피겨스케이팅 기대주인 김예림과 이해인이 국제빙상경기연맹 사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우승을 노린다. ①김예림이 지난달 8일 경기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3'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 ②이해인이 지난달 8일 경기 의정부 실내빙상장에서 열린 'KB금융 코리아 피겨스케이팅 챔피언십 2023'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

테니스 기대주 조세혁 국가대표 상비군 발탁

오늘부터 14일간 훈련... 일정 후 미국 유학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할 것"

한국 테니스의 기대주 조세혁(남원거점스포츠클럽)군이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됐다. 지난 3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정강산)에 따르면 '윌블던 U-14 초대 챔피언'인 조세혁(남원거점스포츠클럽)군이 만14세의 나이로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됐다. 조세혁은 최근 대한테니스회가 발표한 상비군 24명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이에 조세혁은 오는 6일부터 14일간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상비군 훈련에 참여하게 된다. 훈련 일정이 모두 끝난 뒤에는 실력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를 예정이다. 조세혁은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 돼 기쁘다"면서도 "더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세혁 동생인 조민혁(남원거점스포츠클럽)군도 뛰어난 기량을 뽐내고 있다. 최근 호주오픈 14세부 대회에 아시아 랭킹 1위 자격으로 출전한 조민혁은 이 대회에서 3위라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뉴시스

AG 수영 단체전 첫 금 도전

황선우 등 호주서 훈련

한국 수영이 아시안게임 첫 단체전 금메달 도전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 3일 '황제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꾸려온 대표팀 내 특별전략 육성선수단을 올해도 호주로 파견해 2차 국외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11월 열린 2023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 1~4위에 오른 황선우(강원도청), 이호준(대구광역시청), 김우민, 양재훈(이상 강원도청)으로 올해 열리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단체전 특별전략 육성선수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제16회 쇼트코스(25m)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계영 800m 결승에서 황선우-김우민-이호준 양재훈 순으로 해연쳐 6분49초67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하고, 한국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사상 최고 성적인 4위에 올랐다. 이들과 전동현 대표팀 지도자, 박지훈 트레이너가 8일 호주 브리즈번으로

떠나 35일간 호주 경영 대표팀 지도자 출신 리처드 스칼스와 특별훈련을 실시한다. 스칼스는 2015년 카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100m 은메달리스트 캐머런 매케보이와 2022년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 일라이자 워닝턴의 스승이다. 연맹은 "중·장거리에 특화된 스칼스의 지도력을 높이 사 이번 특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스칼스는 연맹을 통해 '멤버인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네 선수와 함께 특별한 경험을 앞두고 있어 기대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국 수영이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시안게임 대비 특별전략 육성선수단은 다음달 15일 귀국해 같은 달 25일부터 김천실내수영장에서 경영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겸해 열리는 KB금융 코리아 스위밍 챔피언십 2023에 출전한다. /뉴시스

태권도원 '매월 4일, 안전을 선4하는 날'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 태권도원 운영관리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태권도진흥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는 지난 3일, 태권도원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겨울철 동파 및 화재 예방, 시설물 정비 등을 일제히 점검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이하 재단)과 태권도원운영관리(주)(대표 서필환 이하 자회사)는 지난 3일, 태권도원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겨울철 동파 및 화재 예방, 시설물 정비 등을 일제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준공 10주년이 되는 태권도원 시설물의 선제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향후 더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23년~24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태권도원은 1월 기준 전년 대비 37%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날 관광수수에 대비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다중 밀집 공간인 T1 경기장과 국립태권도박물관

은 물론 태권도 시범공연이 펼쳐지는 공연장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위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 양성,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등 직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 현장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올해는 방문객의 안전 뿐 아니라 재단과 자회사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안전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어 태권도원이 더욱 앞서가는 태권도 문화 관광지가 되도록 임직원 모두가 안전담당자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올해 프로야구 시범경기 내달 13일 개막... 팀당 14경기

올해 프로야구 시범경기가 다음달 13일 막을 올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3일 2023 KBO 시범경기 일정을 발표했다. 시범경기는 3월 13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며, 팀당 14경기씩 총 70경기가 열린다. 시범경기 개막전은 사직(두산 베어스-롯데 자이언츠), 대구(SSG 랜더스-삼성 라이온즈), 창원(LG 트윈스-NC 다이노스), 고척(KT 위즈-키움 히어로즈), 대전(KIA 타이거즈-한화 이글스) 등 5개 구장에서 열린다. 이번 시범경기 일정은 구단별 이동 거리와 그라운드 공사 등으로 사용이 불가한 구장(인천·잠실·수원·광주)을 고려해 편성했다. 시범경기에는 소속선수와 육성선수가 출전할 수 있으며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은 없다. 또 모든 시범경기는 오후 1시에 시작하며 연장전과 더블헤더는 실시하지 않는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